

최고의 맛 · 친절을 대접합니다

천지가든 · 남대천숯갈비 등 무주군, 모범음식점 25곳 선정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 무주가 모범음식점 2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범음식점은 위생관리와 친절서비스 등이 우수한 업소로, 무주읍의 천지가든과 모든 이의 하우스, 남대천숯갈비, 송정, 독도참치, 박가네, 다복식당, 향연, 무주명가, 금호축산식당, 강나루, 무주어죽, 무풍면의 금강산, 설천면의 구천동별미가든과 원조할매보쌌, 예촌본가, 명가, 토속정, 덕유산한우가, 미가한식, 산들에, 적상면의

별마루가든, 밀모 한우곰탕 · 갈비탕, 안성면의 덕유정과 반딧불한우촌 등이다.

이들 업소에는 지정증과 표지판이 지어지며 향후 2년 간 지도점검이 면제된다. 또 군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홍보물에 소개가 되는 등의 혜택과 상수도 사용료가 감면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식품위생 황복숙 담당은 “모범음식점은 결국 무주관광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기반”이라며 “맛을 내세워 무주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만큼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17 모범음식점 심의에는 기존업소를 포함해 총 36곳의 일반음식점이 신청을 했으며 행정과 소비자 감시원을 비롯한 무주군 외식업지부가 함께 한 현장점검과 무주군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5곳을 선정했다.

무주군 모범음식점 선정 업소들은 “2017년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등 세계인들의 방문이 있고 이목이 집중되는 해라 더 큰 책임감이 든다”며 “손님들에게 모범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맛과 위생, 친절을 대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찾아가는 현장행정 119를 운영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우수'

찾아가는 현장행정 119 운영

무주군이 2016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 시·군에 선정 돼 12월 22일 시상식에서 상패와 상금 3백만원을 받는다.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는 매년 농촌진흥청이 각 시·군의 우수 농정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지역농업의 발전 토대로 삼는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각종 시범사업 등 농촌지도사업 추진 실적과 농촌지도사업 추진 협력정도, 예산확보 및 관리 노력도, 조직관리 정도, 국정합동시책평

가 및 진흥청 평가지표 등이 평가 항목이다.

군은 영농철에는 토·일요일에 찾아가는 현장행정 119를 운영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기계임대사업 추진과 천마중군배양센터, 미생물배양센터, 반딧불농업대학을 운영하며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에 주력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임영택 소장은 “앞으로도 농민과 더불어 일하고 현장을 뛰며 살아있는 농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개설

1억5000만원 투입...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

완주군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지역 친환경농산물 판매망 구축에 나섰다.

14일 군에 따르면 2017년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개설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친환경농산물 판매 차별화를 한다.

완주군 친환경농업 면적은 2016년 340ha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유통은 농협 하나로 마트, 롯데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 기존 농산물 코너에서 일반농산물과 차별화 없이 섞여 판매돼 왔다.

이에 군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바꾸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매장을 개설해 소비자 신뢰 확보 및 가격 차별화를 시도하기로 했다.

따라서 군은 2017년도에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1, 2호점에 친환경농산물 전문코너를 상반기 시범 설치 운영해 지역내 친환경재배 농가들의 소득 증가에 일조할 예정이다.

고석수 기술보급과장은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개설을 통해 농산물 품질 및 가격 차별화로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생산자에게는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군,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우수활용 기관 선정

장수군(군수 최용득)은 지난 10일 개최된 '제7회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우수 활용사례 발표 및 정책설명회(한국건설자원협회 주관)'에서 순환골재 우수활용 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순환골재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건설폐기

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장수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관로공사에 순환골재를 활용해 예산절감 및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 4월 18

일부터 6월 17일까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국내 건설현장 내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우수사례를 공모로 최종 수상기관으로 선정과정을 공표했다.

하수도팀장(장수군)은 “순환골재 활용을 더욱 확대해 국가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환경부장관상 수상

덕유산국립공원, 산불예방 특별대책본부 운영 다음달 15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대의)는 가을철 건조기를 앞두고 다음달 15일까지 “2016년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대책본부 운영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가을철은 건조일수 증가로 인한 산불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과 탐방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감시 인력을 집중배치 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15일부터 자연자원보호 및 산불방지를 위하여 통제되는 탐방로는 향적봉·동업령·남덕유산·영각탐방지원센터 등 모두 12개 구간이며, 개방되는 탐방로는 설천봉·향적봉(0.6km), 구천동탐방지원센터~백련사·향적봉(8.5km), 황점~삿갓골재대피소(3.4km)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서정탐방지원센터~안국사(3.8km), 덕유대자연학습장~안심대(3.3km) 5개 구간이다.

탐방시설과장 윤대원은 가을철 국립공원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은 사전에 통제구간을 확인 후 산행할 것과 출입이 통제된 탐방로는 절대 입산하지 말아야하고, 개방된 탐방로 이용과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화물질 반입, 흡연,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절대 삼가 줄 것을 당부했다.

출입이 통제된 탐방로는 절대 입산하지 말아야하고, 개방된 탐방로 이용과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화물질 반입, 흡연,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절대 삼가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 임시특례제 운영

내년 9월까지 한시적 운영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중세)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거용·종교용 시설부지, 농지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의 지목을 현실에 맞게 바꾸어 대부하여 주는 임시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 밝혔다.

임시특례 제도는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특례대상 용도별 적용기준은 △주거용 시설부지는 5천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이다.

임시특례제도 적용을 받으려면 '국유림경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림 무단점유·사용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위원을 거쳐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해당지는 신고서 제출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국유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행정3.0 구현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무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320-3620~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위원을 거쳐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해당지는 신고서 제출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국유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행정3.0 구현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무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320-3620~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IC 만남의광장 조성용역 중간보고회

진안군은 14일 이항로 군수,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IC 만남의광장 조성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진안IC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진안군 진안을 단양리 114-2번지 일원(진안IC 입구)에 진안 마인산과 홍삼 등 진안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마케팅 사업으로 분산된 홍삼관련 시장을 진안 IC 인근에 조성하여 마인산 관광객을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 단지로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2월 착수하여 착수보고 및 1차 중간보고를 하였으며, 전라북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

어 추진 중에 있다.

이날 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입안하여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진안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 할 예정이다.

이항로 군수는 “홍삼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은 군의 농·특산품의 집적화와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고용기회 증대와 소득을 유발하는 유통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 극대화를 도모하고, 마인산 관광지와 연계할 통해 관광객의 소비에 의한 지역 기반산업을 발전시켜 향후 진안 100년을 책임질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사랑장학재단, 해외 역사탐방 실시

관내 중학교 2학년 대상 중국 상해·항주 등 탐방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항로)은 14일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상반기 추진한 학교를 제외한 관내 8개 중학교 2학년생(42명)을 대상으로 중국 상해로 근현대사 역사탐방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역사탐방은 중국의 상해, 항주 등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가 위치한 곳으로 나라를 잃은 민족을 위해 군사, 행정, 교육, 언론 등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려했던 선열들의 노력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상해 임시정부와 더불어 항일항쟁의 대표적 인격자 홍구 공원을 방문 윤봉길 의사의 의거 정신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중국 경제, 무역, 문화의 중심이자 서울인구의 2.5배가 많고 '중국을 이해하는 열쇠'로 비유되는 상해 지역을 탐방함으로써 가까운 나라 중국의 가능성과 지금 중국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다.

탐방에 참여한 학생은 “이번 역사탐방을 통해 내가 지금 서 있는 우리나라가 우리 선열들의 목숨과 바꾼 피와 땀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니 나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부쩍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사랑장학재단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초등학교와 중학생 중 우수학생들을 선발해 '고구려역사탐방'을 실시해 왔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역사탐방 대상을 진안군 소재 중학교 2학년 전체로 확대해 관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국립관리소

진안선관위, 이장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실시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은)는 지난 10일 성수·주천면을 시작으로 진안군 11개 읍·면 이장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와 배우자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에도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된다는 것을 안내했다.

특히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됨을 알리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촉

완주군이 지방규제개혁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식과 위원회의를 개최했다.

14일 군청 회의실에서 위촉식 위원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식과 위원회의를 갖고, 향후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규제개혁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위촉식에서 박성일 군수는 14명의 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후 간담회를 가졌고, 위원회의에서 지방규제개혁 유공공무원 포상추진 심의와 성공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심도있는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박성일 군수는 “앞으로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와의 협업을 통한 지방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군민과 기업인들에게 규제를 걸어낼 수 있도록 위원들의 고견을 수렴해 기업하기 좋은 완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진장소방서, 전통시장 내 '보이는 소화기' 설치 홍보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겨울철 화재피해 감소대책 일환으로 관내 전통시장 및 판매시설 내 '보이는 소화기' 설치 추진을 위해 홍보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보이는 소화기'는 수동식소화기 표지가 대부분 벽면의 하단부에 부착되어, 소화기 위치 파악이 안되는 부분의 개선 사항으로 화재 발생시 누구나 쉽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 설치하는 것이다.

이에 화재 발생시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전통시장 및 판매시설 11개 대상에 소화기 표지 위치를 변경하고 관계인에게 안내하였다.

조용주 서장은 “화재 발생시 소화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와 특정소방대상물에 '소화기표지 부착위치 개선'을 통해 누구나 쉽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삼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완주군 삼례읍과 삼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 협의체)가 최근 삼례읍 사무소 2층 평생학습실에서 워크숍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삼례읍 맞춤형복지팀 복지허브와 전달체계에 따른 읍 협의체(위원장 신현하) 위원 역량강화 교육과 2017년도 사업 추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은 복지사각지대 개념과 대상자 발굴 방법, 발굴 대상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등 고민하는 시간과 함께 2017년도 지역 자원 활용 특화사업발굴에 대한 의견과 선정된 3개 사업이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승창 삼례읍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위원들이 명확한 목표와 활동방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지역사회 보장사업의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 읍 협의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